

初等學生의 정서지능과 利他行動과의 關係*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Quotient and
Altruism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김 영 숙**

Kim, Young Sook

백 경 임***

Baik, Gyeong Im

ABSTRACT

Differences and relationships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Quotient(E.Q.) and altruism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were analyzed by the demographics of age, residence, and level of education of mothers and mothers' parenting attitudes. Subjects were 469 sixth grade students in urban and rural areas and their mothers. Results showed that parenting attitude was influenced by mothers' living area and level of education. Elementary students' E.Q. was related to their living area. The students' altruism was related to living area and mother's level of education. There was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E.Q. and altruistic behaviors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 본 논문은 1999년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 경주여자상업고등학교 교사

*** 동국대학교 가정교육학과 교수

I. 서론

사람이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최초로 접하는 곳이 가정이고, 인간이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최초의 생활환경은 가정이다. 즉, 인간은 가정에서 그의 부모에 의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성장과 발달을 시작한다. 인간의 발달에서 정서를 포함한 사회성 발달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갖게 되는 양육태도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한편 현대 사회의 자녀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극복에 대해 눈을 돌리면서 사회성 가운데서도 이타행동에 대한 연구가 관심을 끌고 있다. 현대에 이르러 인간성 회복이 절실함을 인지하면서 개인주의 극복의 그 구체적인 대안으로 이타행동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부각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사회성 영역에 대한 연구의 경향은 공격성, 비행행동 등과 같은 인간행동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에서부터 인간 행동의 긍정적인 측면인 이타행동이나 친사회성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우리 나라의 초·중등학교 교육은 대학 입학에 치중하여 인성교육이나 전인교육의 측면에서 심각한 교육의 불균형 상태에 있다. 실제 인간의 삶에서 지적 능력은 성공의 20%만을 좌우하며 나머지 80%는 다른 변인에 의하여 좌우된다는 보고들이 나오고 있다(Gibbs, 1995). 성공적인 삶을 위하여 필요한 다른 변인들 중의 하나로 연구되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정서지능(Emotional Intelligence)이다. 이타행동 즉 타인을 돕는 행동을 하기 위한 친사회적 성향에 대한 연구는 공격적 행동을 조절하기 위하여 정서의 역할이 자주 거론된다. 정서

의 감정이입이 인간적 감수성에 필수적인 것을 지각하면서, 그 동안 관심을 끌어왔던 I.Q.(Intelligence Quotient)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정서지능 지수인 E.Q.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되었다. 김세곤(1997)은 이 점을 인간능력에 대한 현대인의 관심의 정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정범모(1999)는 미래사회에 더욱 인간적 감수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제 새로운 인간 뇌에 대한 연구들은 I.Q.가 아닌 정서가 인간지능의 진정한 측정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Time, 1995) 이러한 사회의 관심 속에 E.Q.(Emotional Quotient)¹⁾라는 용어는 I.Q. 또는 M.Q.(Morale Quotient)라는 용어와 함께 우리 생활 속에 자리잡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실제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 아동의 정서지능이 실제로 이타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하는 것을 점검해 볼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서 출발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즉 초등학생의 정서지능과 이타행동은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어떠한 상관성이 있으며, 또한 정서지능과 이타행동과의 상관관계는 어떠한지 하는 것을 파악해 봄으로써 이타행동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려는 데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로 다음 네 가지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양육태도 실태는 거주지역, 어머니의 연령, 학력에 따라

1) I.Q.와 상대되는 개념으로 사용되며, E.Q.(Emotional Quotient)는 정서지능, 감성지능 또는 정서지능으로 번역되기도 하나 본 논문에서는 정서지능으로 통일한다.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초등학생의 정서지능은 거주지역, 어머니의 연령,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초등학생의 이타행동은 거주지역, 어머니의 연령,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초등학생의 정서지능, 이타행동과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본 연구의 제한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어머니의 양육태도 검사지를 어머니에게 직접 측정하지 않고 초등학생이 지각한 어

머니의 양육태도로 측정하였으므로 실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다를 수 있으며, 정서지능과 이타행동 검사지도 본 연구자가 직접 관찰하거나 면접한 것이 아니고 질문지법에 의거하여 조사된 관계로 실제 행동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둘째, 연구대상을 경주와 그 인근의 농·어촌지역으로 한정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셋째, 어머니의 나이가 제한된 관계로 연구대상 어머니의 연령 분포가 30대에 집중되어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연구결과와의 경우의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의 대상은 경상북도 경주시의 신흥아파트 지역이면서 경주지역에서 도시지역의 특성을 가장 많이 가진 Y초등학교, H초등학교와 경주시 인근의 농·어촌 지역인 N초등학교, J초등학교, K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를 초등학교 6학년으로 선정한 까닭은 어머니의 양육태도 측정시 초등학교 저학년보다 고학년이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좀 더 정확하게 지각할 수 있어 본 조사에는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경주시와 경주 인근의 농·어촌지역의 학교 학생을 구분하여 연구 대상으로 한 것은 이들의 거주지역이 비록 같은 경주시에 속하긴 하지만 실제 생활 면에서 도시, 농촌의 지역적 특성이 뚜렷이 구분되어 나타난다는 연구자의 판단에 의한 것이다.

예비조사는 1998년 12월 14일에서 16일까지 H초등학교에서 실시했으며, 척도에 대한 신뢰도(.85)와 타당도(.78)가 검증되었다. 본 연구의 설문지는 1999년 2월 8일에서 13일까지 본 연구자가 해당 학교에 가서 대상 학급의 담임 선생님께 충분히 설명한 후 담임 선생님의 의해 조사되었다.

설문지는 Y초등학교 150부, H초등학교 146부, N초등학교 48부, J초등학교 100부, K초등학교 49부, 총 493부를 배부하였으나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기에 부적합한 24부를 제외한 총 469부를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측정도구

1) 정서지능 검사지

정서지능 측정을 위하여서는 문용린(1996)이 제작한 초고용(초등학교 3학년 - 6학년) 정서지

능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지는 5가지 영역, 즉 정서 인식(1번~6번), 정서 표현(7번~12번), 정서 조절(13번~18번), 감정 이입(19번~24번), 정서 활용(25번~30번)이 각각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에 대한 반응은 3개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1번~24번)과 2개중에서 하나를 선택(25번~30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1번을 선택한 경우가 많으면 정서지능이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2번을 선택한 경우가 많으면 1번을 선택한 경우 보다 정서지능이 낮고 3번을 선택한 경우는 정서지능이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 검사지의 신뢰도는 영역별로 나뉘어 Cronbach α 계수로 검증되었고, 요인 분석으로 각 하위 영역별 타당도가 검증하였다.

2) 이타행동 검사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이타행동의 측정 도구는 Eisenberg(1989)가 사용한 이타성 자기 보고를 번안 기초하여 전문가의 내용 타당도 검증을 거친 양진숙(1991)이 작성한 검사 도구이다. 각 문항에서 “자주 그런 행동을 한다”에는 1점, “가끔”은 2점, “한번 정도”는 3점, “그런 행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에 4점을 주어 점수가 낮을수록 이타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점수가 높을수록 이타행동을 적게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3) 어머니의 양육태도 검사지

어머니의 양육태도 측정 도구는 자녀가 지각하는 형태의 것으로서 검사지는 Schaefer의 가설적 모형의 기본 가정을 기초로 제작한 Shaw의 양육양식을 참고로 해서 애정-거부(1,2,3,4,5,6), 일치-불일치(7,8,9,10,11,12), 자율-통제(13,14,15, 16,17,18), 비과잉-과잉(19,20,21,22,23,24), 허용-엄격(25,26,27,28,29,30)의 5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김병모(1995)가 제작한 설문지를 본 연구자가 초등학교 아동에 맞게 어휘도 쉽게 수정, 보충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지는 5가지 각 영역이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문항에 대한 반응은 4개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모의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경우를 1점으로 하고 가장 부정적인 태도에 4점을 배점하였다. 그래서 각 영역의 점수가 낮을수록 아동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인 측면, 즉 애정, 일치, 자율, 비과잉, 허용을 지각함을 의미하고 반대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측면, 즉 거부, 불일치, 통제, 과잉, 엄격으로 지각함을 나타낸다.

3. 자료처리

모든 자료에 대한 통계 처리는 spss/pc+ program을 이용하여 pearson의 적률 상관계수 등이 이용되었다.

Ⅲ. 분석결과 및 논의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설문에 응답한 조사대상자의 지역별, 성

별 분포를 살펴보면 표 1-1과 같다. 지역별로는 경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도시지역 응답자가 281명으로 전체 표본의 60%를 차지하고 있

며, 경주시 외곽의 농·어촌 지역 응답자가 188명으로 전체 표본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성별로는 남자와 여자가 거의 동일한 비율로 분포되어 있다.

〈표 1-1〉 응답자의 지역별, 성별 분포

지역	응답자 수(%)	성별	응답자 수(%)
도시	281 (60)	남자	235 (50.1)
농·어촌	188 (40)	여자	234 (49.9)
계	469 (100)	계	469 (100)

〈표 1-2〉 어머니의 연령 분포

연령	응답자 수	비율(%)
20 - 30세	2	0.4
31 - 40세	314	67.0
41 - 50세	150	32.0
51세 이상	3	0.6
계	469	100

응답자의 어머니에 대한 연령별 분포는 표 1-2와 같다.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20 - 30세와 51세 이상 집단의 사례수가 극히 적으므로 분석과정에서는 어머니의 연령 분포를 40세 이하 집단과 41세 이상으로 나누어 두 집단으로 범주화하였다.

〈표 1-3〉 어머니의 학력 분포

학력	응답자 수	비율(%)
무학 - 초등학교 졸업	12	2.6
중퇴 - 중학교 졸업	70	14.9
고퇴 - 고등학교 졸업	280	59.7
대퇴 - 대학교 졸업	89	19.0
대학원퇴 - 대학원 이상	18	3.8
계	469	100

어머니의 학력은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등학교 졸업자가 280명으로 전체의 59.7%,

대학교 졸업자가 89명으로 전체의 19.0%, 중학교 졸업자가 70명으로 전체의 14.9%로 나타났다.

그리고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초등학교 졸업이 12, 중학교 졸업이 70, 대학원 졸업이 18명에 그치므로 어머니의 학력 분포를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중퇴 - 고등학교 졸업, 대학 중퇴 - 대학교 졸업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2. 거주지역, 어머니의 연령, 학력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태도 실태

거주지역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실태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t-test로 이를 검증하였다.

농·어촌지역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비해 도시지역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정태(1995)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태도(기대적 차원, 보호적 차원, 정서적 차원, 지시적 차원)에 따른 지역간의 관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고 한 연구결과와는 불일치 한다. 이것은 광·산촌지역과 농·어촌지역이라는 지역적인 특성에 따른 차이일 수 있으며, 남정태 연구에서의 연구 대상이 2개 학급으로 다소 적었던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될 수도 있다고 하겠다.

한편,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조사한 이진숙(1995)의 연구에서 농촌의 아버지가 도시지역 아버지보다 아동을 양육하는데 더 통제적인 태도를 보임으로 양육태도에서의 지역적 차이가 나타났다는 결과와 비교해 볼 수 있다. 이것은 도시지역 부모가 농·어촌지역 부모보다 상대적으로 생활수준이 높고 자녀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 수 있으며 사회적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표 2〉 거주지역, 어머니의 연령, 학력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태도

대구분	소 구 분	응답자수 (빈도)=N	평균(M)	표준편차(SD)	t값,F값	편차
지역별	도 시	281	2.92	0.29	-2.83**	**P<.01
	농·어촌	188	2.99	0.30		
연령별	40세 이하	316	2.94	0.29	-0.68	
	41세 이상	153	2.96	0.31		
학력별	무학 - 중학교 졸업이하	82	3.03	0.30	3.76**	**P<.05
	고퇴 - 고등학교 졸업	280	2.94	0.29		
	대퇴 - 대학교 졸업이상	107	2.91	0.30		

양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은 농·어촌지역을 포함한 도시지역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부모들에 대한 사회 교육적 차원의 부모 교육이나 자녀 양육방법에 대한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 제공이 보다 필요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는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이진숙(1995)의 결과에서 아버지의 연령에 따라 양육태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와 이진숙(1995)의 연구에서 부모 연령에 따라 양육태도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이유는 여러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겠지만 그 중 하나의 원인은 대상 아동의 연령이 초등학교 6학년으로 고정됨으로 해서 그들의 부모 연령도 역시 일정한 범주가 정해짐으로 인해 비록 40세 이하, 41세 이상이라는 집단 구분은 했지만 큰 맥락에서 볼 때는 동시대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의 학력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가 보다 긍정적이라고 하겠다.

이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이진숙(1995)의 연구에서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아버지의 학력

이 높을수록 덜 통제적인 양육태도를 보인 결과와 비교해 볼 수 있다. 이것은 곧 부모의 높은 교육수준이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하거나 자녀로 인해 좌절감을 느끼거나 심리적으로 자녀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자신의 요구를 강요하는 등의 감정적 양육태도가 아니라 자녀의 입장을 고려하여 행동하는 인지적 차원의 바람직한 양육태도를 가지게 만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거주지역, 어머니의 연령, 학력에 따른 초등학생의 정서지능

연구문제 2는 초등학생의 정서지능은 거주지역, 어머니의 연령, 학력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t-test와 일원 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도시지역 초등학생의 정서지능이 농·어촌지역의 초등학생에 비해 높다고 할 수 있다.

위의 결과는 강미자(1997)의 연구에서 도시지역 학생이 농촌지역 학생보다 정서지능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는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의 여러 가지 사회 문화적 환경의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서 도시지역 초등학생의 경우 농촌지역의 초등학생에 비해

〈표 3〉 거주지역, 어머니의 연령, 학력에 따른 초등학생의 정서지능

대구분	소 구 분	응답자수 (빈도)=N	평균(M)	표준편차(SD)	t값, F값	편차
지역별	도 시	281	1.75	0.22	-2.21*	*P<.05
	농·어촌	188	1.80	0.25		
연령별	40세 이하	316	1.76	0.24	-0.46	
	41세 이상	153	1.77	0.21		
학력별	무학 - 중학교 졸업이하	82	1.79	0.31	0.64	
	고퇴 - 고등학교 졸업	280	1.76	0.21		
	대퇴 - 대학교 졸업이상	107	1.76	0.22		

〈표 4〉 거주지역, 어머니의 연령, 학력에 따른 초등학생의 이타행동

대구분	소 구 분	응답자수 (빈도)=N	평균(M)	표준편차(SD)	t값, F값	편차
지역별	도 시	281	2.10	0.42	-4.85***	***P<.001
	농·어촌	188	2.30	0.46		
연령별	40세 이하	316	2.16	0.47	-1.42	
	41세 이상	153	2.23	0.40		
학력별	무학 - 중학교 졸업이하	82	2.29	0.48	3.68*	*P<.05
	고퇴 - 고등학교 졸업	280	2.18	0.43		
	대퇴 - 대학교 졸업이상	107	2.11	0.46		

다양한 경험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도시에 비해 농·어촌지역에 대한 교육적 배려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더욱 높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연령과 정서지능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것은 사회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정서지능에 대해 아직까지 우리 어머니들은 그 필요성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거나 직접적인 학업성과는 밀접한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여 어머니들의 연령에 관계없이 정서지능을 소홀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정서지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정서지능의 향상을 위한 교육방법을 습득하지 못한 결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어머니의 학력수준에 따른 정서지능도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것은 연령에 따른 차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어머니들의 학력에 관계없이 정서지능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 부족하고 정서지능의 중요성을 실감하지 못하거나 또는 실제 정서지능의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습득하지 못함으로 인해 초래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거주지역, 어머니의 연령, 학력에 따른 초등학생의 이타행동

연구문제 3은 초등학생의 이타행동이 거주지역, 어머니의 연령, 학력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

해 t-test와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도시지역의 초등학생이 농·어촌지역의 초등학생에 비해 이타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이진숙(1995)의 연구에서 아동의 도덕성은 아버지의 거주지(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 따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차이가 있다. 이는 양육자가 어머니인 경우와 아버지인 경우, 즉 양육자의 성별 차이에서 오는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한편 이화용(1989)의 연구결과인 지역별 유아의 사회성숙도에서 농촌 유아보다 서울 유아가 사회성숙도가 더 높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 이것은 농·어촌지역에 비해 도시지역의 생활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고, 도시지역의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사회성 및 이타행동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더 많이 제공해 주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어머니의 연령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초등학생의 이타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이진숙(1995)의 연구에서 아동의 도덕성은 아버지의 연령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다. 이것은 부모의 연령에 관계없이 자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자녀들이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이타행동을 많이 하도록 기회를 주고, 자녀들 스스로가 이타행동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는데서 나온 결과라고 생각한다.

어머니의 학력 수준에 따라 초등학생의 이타행동은 차이가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윤경희(1995)의 부모 학력과 친사회적 행동과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은 것보다도 비교해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초등학생의 이타행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실제 기회를 주며 그에 따른 환경을 만들어 주기 때문이라고 본다.

5.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초등학생의 정서지능, 이타행동과의 상관관계

연구문제 4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초등학생의 정서지능, 이타행동간에 관련성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표 5〉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초등학생의 정서지능, 이타행동간의 상관관계

구 분	양육태도	정서지능	이타행동
양육태도	1.00		
정서지능	0.16	1.00	
이타행동	0.11	0.40	1.00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초등학생의 정서지능간의 상관관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초등학생의 이타행동간의 상관관계도 거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초등학생의 정서지능과 초등학생의 이타행동간의 상관관계는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권옥자(1987), 남정태(1995) 등이 연구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사회 성숙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인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초등학생의 정서지능과 이타행동에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는 일치한다. 한편, 박윤정(1997)의 연구에서 정서지능과 사회성(사교성, 지도성, 인기성, 사회성, 비사교성, 비지도성, 비인기성, 비사회성)과의 관계에서 서로 상관이 없거나 상관이 있더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불일치하며, Mayer와 Salovey(1990)은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은 사회 생활에 적극적인 방법으로 정서를 조절한다는 연구 결과와 Cacippo(1991)와 Hatch(1990)의 연구에서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은 사회성이나 대인 관계 기술도 뛰어나다고 한 결과와는 일치한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초등학생의 정서지능과 이타행동은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특성들은 부모의 영향

보다는 자녀측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를 교육시킴으로써 정서지능과 이타행동의 정도를 높일 수도 있겠지만 보다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초등학생 자신이 자기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평가하고 표현하며,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그런 정서를 이용하여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을 기르는 학생 대상의 교육 program 개발 및 교육의 기회가 필요하다고 본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거주지역, 어머니의 연령, 학력수준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초등학생의 정서지능, 이타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초등학생의 정서지능, 이타행동간에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었다. 이를 위해 행정구역상 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도시지역 초등학생과 시외곽의 농·어촌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초등학생 6학년들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양육태도, 정서지능, 이타행동에 관한 질문지를 배포, 회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결론 제시 및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도시지역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더 긍정적이며 아동의 경우도 정서지능 수준도 높고 이타행동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당연한 결과이나 앞으로는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 환경에 처해 있는 농·어촌지역의 부모 및 아동을 위한 국가적인 차원의 구체적인 교육적 관심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른 초등학생의 정서지능이나 이타행동과는 상관이 없으나 초등학생의 정서지능과 이타행동간에는 상관이나 나타남으로 해서 보다 엄밀한 연구로 인과관계를 추론해 볼 필요성이 있지만 이타행동과의 상관은 부모의 변인보다는 학생 스스로의 변인이 더 중요한 것으로 아동의 정서지능과 이타행동의 향상을 위해서는 부모를 통한 간접적 교육보다는 자녀를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교육의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셋째, 어머니의 학력수준에 따른 자녀의 정서지능은 차이가 없었으나 자녀의 이타행동은 차이가 있었다. 이 점 역시 더욱 많은 연구로 확인되어야 하지만 이타행동은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행동으로 지각됨으로 해서 부모의 교육적 관심을 끌지만, 정서지능은 아직 어머니들에게 중요한 개념으로 부각되지 않아 교육적 관심을 끌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한다. 앞으로 정서지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서 정서지능에 대한 교육적 관심이 커지면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정서지능 사이에 상관이 높아질 것

으로 생각된다. 이 점은 학교나 가정에서 정서 지능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함을 나타내는 결과라 하겠다.

넷째, 초등학생의 정서지능과 이타행동과의 상관성이 있음이 밝혀진 셈이므로 이타행동 증진

을 위하여는 정서지능에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음이 확인된 셈이다. 이 점은 이타행동 증진 program 개발에서 정서지능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으로 요구됨을 나타내는 결과라 하겠다.

참 고 문 헌

- 강미자(1997). E·Q와 수학의 학업성취도 및 E·Q와 I·Q의 상관성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곽윤정(1997). 정서 지능의 발달 경향성과 구인 타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민균(1988). 슬픔과 기쁨, 그 정서의 소재유형이 중학생의 이타행동에 미치는 효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일선(1994). 어머니의 자아개념 및 양육태도가 유아의 유치원 적응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권옥자(1987). 어머니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른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동기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성일(1993). 부모의 수용과 청소년의 성격 발달, 한양대학교 정신건강연구, 제12집.
- 김세곤(1997). 아동의 I·Q, 정서지능, M·Q 발달의 의미와 경주지역의 문화·역사적 교육환경요인, 경주연구 제6집, 183-P196.
- 김정주(1992).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자아 개념과의 관계,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상인(1983).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인지양식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남정태(1995). 초등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재단법인 교보생명 교육재단(1999). 21세기 국민교육진흥을 위한 교육공동체 건설. 기초 강연.
- 류숙희(1996). 지각된 다중지능의 집단차와 IQ 및 성적과의 관계 분석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문교민(1994). 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학교적응,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문용린(1997). 종합 진로·적성 검사, 서울: 대교 출판부.
- 박경원(1986). 아동의 이타행동의 발달과 역할수행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양재(1996). 불교경전에 의한 문학교육 가능성에 관한 고찰(학령전 아동의 이타성발달을 중심으로), 불교대학원 논총, 제1집.
- 송영민(1996). 어머니 양육태도와 유아의 부적응 행동과의 관계, 순천향대학교 지역사회 개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양진숙(1991). 초등학교 아동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와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오기선(1965). 어머니와 자녀관계 진단검사, 서울 KTC.
- 오금희(1985).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도덕적 판단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오숙영(1996). 인지 지능과 감정 지능의 교육적 효과 비교,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윤경희(1995).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

- 동의 창의성, 친사회적 행동 및 학업성취도와 의 관계,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윤현석(1997). 감성지능과 창의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광자(1997).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감성지수 (E·Q)와의 관계,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종승(1982).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정의적 특성의 관계, 연구노오트, 서울: 행동과학연구소
- 조은경(1997). 무용교육을 통한 성격형성이 EQ발달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원영(1983). 어머니의 자녀교육관 및 양육태도와 유아발달과의 관련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화용(1987).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성 숙도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원식(1972). 인간과 교육, 서울: 배영사.
- 최순영(1980). 자아관여 및 자존심의 변화가 이타행동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국아동학회(1998). EQ, 제대로 알고 있는가? 정서지능의 이해와 적용.
- 허미자(1995). 아동의 창의성 발달과 어머니의 양육태도와의 관계,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Aronfreed, J.(1968). *Conduct and conscience; the socialization of internalized control over behavior*, New York: Academic press.
- Averill, J.R. & Thomas-Knowles(1991). Emotional Creativity. In K.T, Strongman(Ed), *international Review of studies on Emotion* New York: John Wiley & Sons Ltd. 269-299.
- Bar-Tal D.(1976). *Prosocial Behavior*,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 Barron, F.(1955). The disposition towards originality.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1. 478-485.
- Baumrind, D.(1967), Child care practices anteceding three patterns of preschool behavior, *Genetic psychology Monographs*.
- Berkowitz, L.(1972). Social norms, feelings and other factors affecting helping and altruism. InL. Berkowitz(Ed.), *Advancers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6. New York: Academic press.
- Cohen, R.(1972). Altruism; human, cultural or what?, *Journal of social Issues*, 28(3), 39~57.
- Fisbein, M.(1975). *Attitude Intens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heory Research Reading*, Massachusetts: Addison-Wesley.
- Floody, D.R.(1980). *University of Wisconsin Center-Baron Country*(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192882).
- Gibbs, N.(1995). The EQ Factor. *Time*, Oct. 9. 24-31.
- Goleman, D.(1995). *Emotional Intelligence*. Bantam Books.
- Hatch, T.(1990). Social intelligence in young children. Paper deliver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Krebs, D.L.(1970). Altruism - an examination of the concept and review of the literature. *Psychological Bulletin*, 73, 258-302.
- Mayer, J. & Salovey, P.(1990).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9, 185-21.
- McGraw, K.O.(1987). *Development Psychology*, Florida: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
- Midlarsky, E.(1968). Aiding responders; an analysis and review. *Merill - Parmer Quarterly*, 14, 229-260.
- Mussen, P.H., Conger, J.J.(1974),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ity*, New York: Harper & Row.
- Mussen, P. and Eisenberg-Berg, N.(1977). Roots of

- caring, sharing, and helping: The development of prosocial behavior in children, Can Francisco: Freeman.
- Perry, D.G., & Bussey, K.(1984). *Social Development*.
- Rohner, R.P.(1980). *Handbook for the study of parental Acceptance and Rejection*. Univ. of Connecticut.
- Schaefer, E.S.(1959). A circumflex model of maternal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9, 226-235.
- Symonds, P.M.(1949). *The dynamics of parent-child relationship*, New York: Bureau of publications, Teachers collage, columbia University.
- Walster, E., & Piliavin, J.A.(1972). Equity and innocent bystander. *Journal of social Issues*, 28(3), 165-189.
- Watson, G.A.(1934). Comparison of the effects of box versus strict home training,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5.